

10일 Market Index	
코스피 5858.87 (+80.86)	코스닥 1093.63 (+17.63)
금리 (연이자율) 3.360 (+0.022)	환율 (원/달러) 1483.50 (+1.00)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  
글로벌 1위  
04



## “벼락거지 될라”... 투자자, 증시로 머니무브

### 증시 대기자금 113조 달해

작년 말 88조 대비 약 25조 늘어  
단기 대기처 CMA 잔액도 111조  
가계대출 자금 4개월 만에 상승  
증시 핵심 주택 아닌 ‘주식 투자’

‘앵그리 머니’가 증시 주변에 몰려들고 있다. ‘나만 소외되는 것 같다’는 포모(FOMO)와 낯 놓고 있다가 ‘벼락거지(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산 격차가 벌어진 사람)’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투자자를 증시로 불러 모으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9일 기준 112조80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87조8290억원과 비교해 24조9779억원 늘어난 규모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 매수를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돈으로 증시 주변 대기 자금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 꼽힌다. <관련기사 4면>

증권사 CMA 잔액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9일 기준 CMA 잔액은 110조9719억원으로 2월 13일 106조368억원보다 10조6327억원 증가했다. CMA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필요할 때 곧바로 주식이나 금융상품 투자에 나설 수 있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대표적인 단기 대기처로 여겨진다.

증시로의 ‘머니 무브’ 행렬은 다양한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297조였던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은 9일 기준



### 기름값 상승폭 둔화

1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이날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992.3원으로 전날보다 0.7원 상승, 경유 가격은 1985.8원으로 0.6원 상승해 전국 주유소 평균 유가 상승세가 대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391조8733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순자산 1조원이 넘는 ‘공룡 ETF’는 2024년 34개에서 올해 1분기에만 79개로 2년도 안 돼 2배가 넘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도 32조7200억원에 달한다.

년 달 만에 늘어난 가계대출 자금도 증시로 향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3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8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이어

지던 감소 흐름이 깨진 것이다. 이번 대출 증가의 핵심은 주택이 아닌 주식이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4조9000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전세자금 수요 둔화가 맞물린 결과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한 달 사이 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은 포함세를 보였지만, 이란 전쟁 여파로 출렁이는 증시에서 기회를 잡으려는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신용대출을 끌어올린 결과로 분석된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가가 많이 빠진 날 기타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금과 가상 화폐 투자자들도 증시를 기웃거리고 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장보다 0.6% 내린 4787.40달러에 마쳤다. 중동 전쟁 후 하락세를 보인 국제 금값은 지난달 약 12% 떨어지며 2008년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1차 전체 회의에서 주식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관련해 “소액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나선 JD 밴스 미국 부통령(가운데)이 11일(현지 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해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왼쪽)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AP·뉴시스

## 美-이란, 협상 결렬 서로 입장차만 확인

파키스탄과 조율여부 관심

미국과 이란의 수 싸움이 시작됐다. 11~1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마주한 양측은 종전 조건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휴전 기간 실시된 첫 번째 협상을 마쳤다. 보름간의 휴전은 이달 21일까지로 잡혀 있다. 중재국 파키스탄이 후속 협상을 위한 날짜 조율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협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 측은 미국의 내건 합의조건인 핵 포기 약속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는 “21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왔다. 이란과 여러 차례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은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미국보다는 이란에 훨씬 더 나쁜 소식”이라고 했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협상팀 소식통을 인용해 추가협상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타스님통신도 “이란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란은 다만 외교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은 밝혔다.

한편 중국이 이란에 무기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미국 CNN방송 및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중국 측은 관련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CNN은 중국이 제3국을 거쳐 이란에 미사일을 보낼 가능성을 제기했다. 방송은 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 이 같은 무기 지원 징후가 보인다고 했다.

중국은 그간 일부 기업을 통해 이란을 비밀리에 지원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군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화학물질, 연료, 부품 등의 이란행 선적을 허용했다는 소문이다. 하지만 무기 완제품의 지원 설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에 대해 류펑위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분쟁 당사자 그 어디에도 무기를 지원한 적이 없다”며 “해당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 m-커버스토리

# 새마을금고·농협 등 비회원 가계대출 문 걸어 잠근다

### 상호금융 ‘대출 섣다운’

당국 규제에도 올해 8.2조 증가  
전년 동기 1조 대비 약 8배 올라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취급 중단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도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달 중으로 비회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주담대 우대금리 혜택 제공도 폐지한다. 그간 금고별 재량으로 고객에게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온 것을 중단하고, 대출금리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에도 대출모

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창구를 통한 중도금·이주비·분양 잔금 대출 영업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계대출 축소 기준은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1%를 넘는 단위 농협을 대상으로 비조합원, 준조합원에 대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증가율이 1% 이하인 단위 농협이라도, 비조합원 대출의 경우는 정관상 사업 구역 내에 서만 허용된다.

신협 역시 신규 대출 심사 및 모집법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 활동을 중단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한도를 넘어서는 조합에는 비조합원 가계대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은 탓이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올해 1~3월에만 총 8조2000억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분(1조원)과 비교해 약 8배 오른 수준이다.

월별로는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분이 1월 2조3000억원, 2월 3조1000억원, 3월 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금융권 대비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2조7000억원이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했다. 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의 4분의 3 이상이 상호금융권에 집중된 것이다.

업계는 신규 대출 취급 중단 이전에 승인한 대출이 차례대로 집행된

영향이라고 설명한다.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한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는 시차를 두고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3월 가계대출 증가분을 두고 “상호금융권의 신규 대출 취급 중단 조치 전에 승인된 집단대출의 집행분 등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 유예 종료에 따른 매출 총회 효과, 중동 지역 리스크 요인 지속 등으로 가계대출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 업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 ▲이 대통령 “세제·금융·규제 정상화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알뜰한 가능” /사진 뉴시스
- ▲이 대통령, ‘완도 화재’ 소방관 사망에 “깊은 애도... 용기와 헌신에 경의”

- ▲김 총리, ‘완도 화재’ 소방관 순직에 “안전보장 장비와 훈련개선 힘쓸 것”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 착수

- ▲野 “이 대통령, 국익 저해하는 SNS 정치 중단하라”
- ▲국힘 “‘대장동 씹는 애들 대장암 걸렸으면’ 막말 논란 정동극장 대표, 임명 철회하라”